

‘복권 열풍’ ... 이대로는 안된다

사행심 ‘조장’ ... 근로의욕 ‘저하’

부처님께서 사뱃티의 기원정사에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날 코살라의 파세나디왕을 비롯한 여러 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회를 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이 무엇인가’를 화제로 올렸다.

이에 대해 한 왕은 ‘아름다운 모습(色)이 가장 즐겁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아름다운 소리(聲)가 가장 즐겁다’고 했다. 그러자 다른 왕은 향기(香)를, 또 어떤 왕은 맛(味)을, 또 다른 왕은 감촉(觸)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의견이 각각 나뉘자 왕들은 부처님을 찾아가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부처님은 왕들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대왕들이여, 모든 즐거움은 자기의 뜻에 맞아야 가장 즐거운 것이 되는 것이니라. 자기의 뜻에 맞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느낌을 받아들일 때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적절한 것을 뜻에 맞다고 하느니라.

그러므로 적절하게 유희한 것이 가장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잡아함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도리어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최근 불교 있는 복권열풍이 바로 이와 같다. 복권은 본래 공공자금을 모으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적당하기만 하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복권은 이미 그 취지를 잃어 허영을 불러일으키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소비를 부추기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일확천금의 기대를 갖고 복권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 당첨금 20억원인 복권은 매진사례고, 인터넷 복권 사이트도 과열을 보이고 있다. 몇십만원 어치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지

갑에 복권 한 두장쯤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현재 우리나라 복권시장은 시장규모에 비해 발행기관과 복권종류가 지나치게 많은 편이다. 주택은행과 과학문화재단 등 8개 기관에서 즉석식 8개, 추첨식 4개 등 모두 12종류를 발행한다. 산림청에서 이미 녹색복권을 발행하기 시작했고, 이달부터 근로복지공단이 1등 최고금액 30억원인 ‘복지복권’을 판매하며, 환경청도 올 하반기에 환경복권을 발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러다가는 사회 저변에 요행만을 바라는 심리가 만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한가지 문제는 복권을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이는 결국 복권을 발행하는 주체가 가난한 사람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 셈이다.

현재와 같은 거액의 복권발행이 능사인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문제다.

〈백유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 “옛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재물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큰 부자를 보고 그와 같은 재물을 갖고자 하였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그 조그만 재물마저 물 속에 버리려고 하였다. 옆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그 재물이 비록 적지만 늘릴 수도 있다. 그대의 앞날은 아직 멀었는데 왜 그것을 물 속에 버리려고 하는가?”

한탕주의를 꿈꾸며 복권에 빠진 사람들은 깊이 새겨볼만한 가르침이다. 아울러 정부도 고액 복권 발행에 의존해 예산 확보나 기금마련이니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예산 확보나 기금마련을 위한 발전방향을 찾는 데 고심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무엇인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2개월 후 ‘게놈’ 해독 인체신비 벗겨진다

다가오는 5월에 마침내 인체의 신비가 벗겨진다.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앞으로 2개월 후 인간의 유전표지인 게놈(Genome) 해독작업의 완성을 발표할 것”이라고 2월29일 발표했다.

인체의 비밀을 푸는 ‘게놈 프로젝트’의 핵심인 유전자 지도는 21세기 생명공학의 첫 걸음으로 그 파급 효과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되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책 수천권 분량의 유전자 지도가 완성될 경우 어떻게 사람이 사람 모양으로 생겨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피부색과 키, 노화의 정도까지 조절하는 길을 열 수 있게 된다. 또 개개인의 유전자 특성에 따른 ‘맞춤 의약품’의 개발도 가능해진다.

유전자 지도는 특히 난치병 등 의료분야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 유전자와 질병 유발 유전자에 관한 데이터가 확보되기 때문에 유전질환, 후천성질환, 신경·근육질환, 에이즈 및 일부 심혈관 질환과 암을 치료하는데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과학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도 있다. 유전자 정보가 공개되면 인간에 대한 유전적 차별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으며, 개인과 가족의 유전적 질환 때문에 생명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취업에 실패할 수도 있다. 미국이 이들 정보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독점할 가능성도 불시로 남아있다.

이제 인류에게는 이를 악용하지 않는 지혜를 가다듬는 일이 남겨졌다. “지혜는 뛰어난 광명이고, 어리석음은 지극한 어둠”이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인류복지에 전기를 마련해 줄 유전자 지도가 빛으로 다가오게 하는 것은 유전자 지도를 만든 인류의 몫이다.



400번째 위안부 수모집회 3·1절인 지난 1일로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이 매주 수요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벌여온 수모집회가 400회를 맞은 가운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이날 교보빌딩 옆 소공원에서 ‘400차 맞이 특별기념식’을 열었다.

특별기념식에는 나눔의 집(원장 해진) 위안부 할머니 8명과 서울지역청소년연합단체 회원 등 3백여명이 참가했으며, 스포츠장비인정 스포츠상규명 공익성 사죄, 스포츠장비 처벌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피해배상 △역사교과서에 기록 등을 일본정부에 요구했다.

청소년 100명 “새만금 지키자”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진행중인 전북 김제 부안 지역과 서울 대전 광주 등지에서 모인 초·중·고생 100명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 안국동 테리나 무카페에서 가진 ‘새만금 지키기 미 래세대 100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어린이는 ‘미래세대 소송을 여는 날’을 통해 “어른들은 말 끝마다 어린이는 미래의 주인공이며 자연은 미래세대의 것이라고 하지만, 새만금처럼 컸다란 공사를 하면서 주인공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으며 ‘새만금 물막이 공사를 하지 않고 우리와 우리 동생들의 뚝을 남겨달라’고 관사님들

에게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한 녹색연합과 생명회의는 대규모 원고인단과 후원인을 모집해 5월5일 어린이날 집단 소송을 낼 방침이다.

이번 소송은 ‘뿌리대로 거둔다’는 불교의 가르침과도 같은 맥을 같이한다. 관계당국에게 다음과 같은 부처님 말씀을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실사 허공을 땅으로 만들고 땅을 허공으로 만들 수 있다해도 이미 뿌려 놓은 인연의 씨앗은 썩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나니 인연이 무익하는 날에는 반드시 받아야 하리.” 〈중일아함경〉

풍요속의 빈곤 결식아동 17만명

지난달 28일 경제대국 일본에서 2세 여아가 굶주린 끝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었다. 아이의 엄마는 미혼모로 직장을 잃은 채 딸과 함께 난방이 끊긴 아파트에서 열흘동안 굶었다고 경찰에서 밝혔다.

풍요로움 속에서도 빈곤에 허덕이는 아이들,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남아돌아 버려지기도 하는데, 한쪽에서는 굶주림과 새우잠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엄연한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끼니를 제때 잊지 못하는 결식아동이 올해 들어 17만명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있다. 더욱이 결식아동이 98년 13만명, 99년 15만명에서 계속해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지원 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느 구석에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아이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설사 한 아이가 굶어 죽는다고 해도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닐 것이다.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빈곤은 역시 남의 일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회가 아무리 호황을 누려도 그늘속 사람들이 신용한다면 그 사회는 건강한 공동체라 할 수 없다.

못 먹고 자란 아이들은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고 한다. 우리사회의 분배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사회를 원망하는 아이들은 계속해 늘어갈 수밖에 없다.

세존에서는 아난에게 “마땅히 자애의 마음으로 어린애들을 양육하며, 뜻대로 먹여 편안함을 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가난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부의 재분배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론

휴대폰 문화

현대인들은 모든 것이 바쁘고, 급하고, 그래서 기가 막히게 신속하고 효율적이다. 모두들 알 수 없는 흐름에 떠밀려, 실제로 바쁘고 급한 일이 없어도 그러한 흐름에 몸을 실어야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자신만이 한 템포 느리게 움직이면 마치 뒤처지는 것 같고 소외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사랑하는 이나 친구는 물론, 부모님께 쓰는 편지도 컴퓨터 앞에서 자판을 두들겨 A4용지로 뽑아 보낸다. 그러나 편지라는 형식을 버리는 것은 나쁜 편이고, 대부분은 전화 한 통으로 끝낸다. 참 편리하고 좋아진 세상... 진정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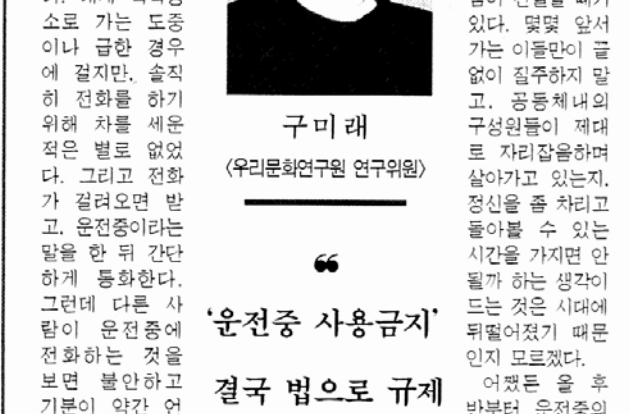
문전중에는 전화를 걸지 않았던 초기(3년 전)에 비해 최근의 나는 때때로 전화를 거는 편이다. 대개 약속장소로 가는 도중이나 급한 경우에 걸지만, 솔직히 전화를 하기 위해 차를 세운 적은 별로 없었다. 그리고 전화가 걸려오면 받고, 운전중이라는 말을 한 뒤 간단하게 통화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운전중에 전화를 하는 것을 보면 불안하고 기분이 약간 언짢아진다. 그리고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되어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최근의 뉴스를 접하면서는, 마치 나만은 예외인 양 고개를 흔들며 세태를 탓한다. “나? 난 피치 못할 경우에만 결장”이라고 합리화하면서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나부터 잘못 된 것을 고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그럴 때 ‘나’는 스스로 합리화와 용서가 가능한 ‘미약한 개인’일 따름이고, ‘나 이외의 모든 이’를 엄청난 다수가 되어 내게 피해를 주는 ‘강력한 전체’가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연·혈연·학연 때문에 틀렸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혼자서만 잤고 팀워크는 형편없지?” 등등, 우리들이 수시로 토로하는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한 불만들에서 과연 자신은 자유로울 수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이가 얼마나 될까? 모두들 다수로부터의 피해의식에 젖어 자신이 그 다수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며 살고 있지 않을까? 우선, 나 자신부터 말이다.

과학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여 일상의 삶을 하루가 다르게 변화시킨다. 온갖 문명의 이기들을 주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성숙된 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채, 마치 인간의 삶의 질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 물질문명만 끝없이 앞서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때로 모든 과학기술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만 멈추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할 때가 있다. 몇몇 앞서가는 이들이 없으면 좋겠고, 공동체내의 구성원들이 제대로 자리잡아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졌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후 반부터 운전중의 휴대폰 사용에 대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자는 스스로 민망할 따름이다.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자율과 자유를 당당히 외치는 우리들이, 성숙된 문화를 자율적으로 조성하지 못하고 법의 힘을 빌게 되었으니 말이다. 정부가 잘못된 일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으면, 잘못된 휴대폰문화 등에 대해서도 스스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과반수가 가지고 있다는 휴대폰, 차 안에서든 공공장소에서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다만 실천하지 않고 있을 뿐, 이제 법적인 조치와 관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제하는 성숙한 휴대폰 문화가 자율적으로 정착되길 바랄 뿐이다.



구미래 (우리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운전중 사용금지” 결국 법으로 규제

“나부터 지키자”

“운전중 사용금지” 결국 법으로 규제 “나부터 지키자”

다양 속에 묻어나는 단아한 차이까지

“다인들은 차를 선이라 하네”

차는 울적한 기분을 흩어지게 하며,
 차는 생기가 나게 하며,
 차는 잠을 깨게 하며,
 차는 잔병을 예방하며,
 차는 남을 공경하게 하며,
 차는 스스로 예의를 닦게 하며,
 차는 마음을 아름답게 하며,
 차는 도리를 따르게 하며, 차는 맛을 분별하게 하며
 차는 스스로 몸을 다스리게 한다.

-劉貞一 「茶仙十德」-

다인(茶人)들이 차를 마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물어보면 다음과 같다. 차는 흥로 마시는 것으로 들으며, 흥로 마시고 있노라면 만감이 교차하게 된다. 그 교차하는 만감이 차차 줄어들다가 먼 나중에는 공허함에 남지 않게 된다. 그러나 공허를 다시 조이면 성찰(省察)이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그 성찰을 거듭하게 되면 세심스레 이웃과의 인간관계가 떠오르고, 이를 성실하게 했던 사람들과 나를 해쳐려 했던 사람들이 떠오르지만 비운 생각이 들지 않고, 중도가 일어나지 않는다. 모두 용서하게 된다. 그러는 중에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이전에 지녔던 욕망과 집착, 손익, 오만 따위가 우습게 여겨지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차를 마시는 중에 일어나게 되는 생각의 지나감이다.

김봉우 에세이
 신국판 352면
 값 10,000원

茶人들은 차를 禪이라 하네

21세기를 깨우는 할(喝), 정휴스님 전집 출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그러들지 않는 감동,
 변하지 않는 순수한 사랑을 일깨우는
 영혼의 언어가 우리 곁에 찾아온다.

제1권
 제2권

신국판 양장/각권 10,000원

어디서 와서 무엇이 되어 어디로 가는가
 선재의 천수천안

정휴스님전집 1.어디서 와서 무엇이 되어 어디로 가는가 2.선재의 천수천안 3.전강명전(田岡明傳) 4.중정법어집(宗正法語集) 5.근간 6.백적간두에 무슨 절망이 있으리요 7.근간 8.낮은 사람의 자유 9.고승명전집(高僧傳集) 10.근간 11.월반제 12.우상 속에 영원을 산 사람들 13.근간 14.술을 때 내 곁에 오는 초인(超人) 15.근간 16.결레스님 증강 17.근간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성로 37가 1-38
 전화 (02)313-5047, 5056 팩스 (02)393-9696